

광주 출신 젊은 시인 김경주 '열풍'

광주 출신 김경주(33·사진) 시인이 '2000년대 촉망 받는 젊은 시인'으로 선정되는 등 문단을 이끌 차세대 시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계간 '시인세계'는 봄호(통권 27호)에서 김 시인을 2000년 이후 등단한 젊은 시인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시인으로 꼽았다. 강은교, 김해순, 문인수, 신달자, 오탁번 등 시인 56명과 권혁웅, 김용희, 장석주, 최동호 등 평론가 34명에게 시인 5명 이내로 추천 받은 결과다.

김 시인은 이미 지난해도 계간 '서정시학'이 주관하는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우리 시대 대표 젊은 시인'으로 꼽힌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2007년 가장 좋은 올해의 시'로 그의 시 '무릎의 문양'이 선정됐었다.

2003년 대한매일(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꽃피는 공중전화'가 당선되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한 김 시인은 2005년 대산창작기금 수상했으며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기담'과 산문집 'passport' '펄프 키드' '레인보우 통령' 등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시인이기 이전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꾸린 문화연구소 '유리남 바깥'을 이끌고



무릎의 문양

저녁에 무릎, 하고
부르면 좋아진다
당신의 무릎, 나무의 무릎, 시간의 무릎,
무릎은 몸의 파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살을 뺐도는 자리 같은 것이어서
저녁에 무릎을 내려놓으면
천근의 희미한 소용돌이가 몸을 돌고 돌
아온다

누군가 내 무릎 위에 잠시 누워 있다가
해방이 된 한 마리 소를 풀어놓고 잠든 적
도 있다
누군가의 무릎 한쪽을 잊기 위해서도
나는 저녁의 모든 무릎을 향해 눈먼 벼처럼
바짝 엎드려 있어야 했다

"내가 당신에게서 무릎 하나를 얻어오는
동안 이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무릎에 대해서
당신과 내가 하나의 문명을 이야기하기 위
해서는 내 몸에서 잊혀질 뻔한 희미함을 살
밖으로 몇 번이고 때어내게 했다가 이제 그
무릎의 이름을 당신의 무릎 속에서 흐르는
대기로 불러야 하는 것을 압니다 요컨대 무
릎이 많아서 사랑을 하려는 새들은 서로의
몸을 침으로 적셔주며 형질 속에서 인간이
됩니다 무릎이 많아서 안 된다던 이 시간과
는 근친 아닙니다"

<일부 발췌>

시인세계 '2000년대 주목 받는 시인' 선정 연극 연출가·극작가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

있는 기획자이다. 또 극작가로도 활동하며 텍스트를 넘어선 전방위 문화 활동가로도 활약해 왔다.

지난해 문학을 소재로 한 연극을 10여회 연출한 그는 시집 '기담'을 모티브로 한 음악, 마임, 낭송의 무대를 통해 앞 클럽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의 대표작 '무릎의 문양'은 "무릎이라는 신체 부위와 낱말에서 느끼게 되는 깊은 질감들을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이들로 부터 사랑 받아왔다.

그의 글쓰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그는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자아록'이라는 것을 쓰며 문학의 꿈을 키웠고 안해배 아라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기반을 닦았다.

24살 때 강력한 반장이었던 아버지가 IMF로 명퇴를 하며 들고온 타자기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생 죄의 기록을 타자기로 쳤지만 그는 삶의 애환을 타닥타닥 시로, 희곡으로 풀어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써온 '습작노트' 30~40권을 아직도 가지고 다닌다. 7년 짝사랑한 여자에게 보낸 800통의 편지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편지는 정서하기 전에 쓴 초고들이다.

김 시인은 "나이 들어 문장력이 떨어지면 습작노트를 꺼내 작풍과 해를 생각"이라며 "시와 함께 여행 산문도 계속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론가 권혁웅은 김 시인에 대해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 말하고 지시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며 결여와 부재가 기능하는 특별한 형식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시인은 1976년 광주출생으로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등을 돌며 입학과 중퇴를 반복하다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한 이색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편'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남주 시인 15주기 ... "전사여 고이 잠드소서"



해남 출신 고(故) 김남주(1946~1994) 시인 15주기 추모제가 15일 오전 '민족시인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와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고재종) 공동주최로 5·18 구도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는 유족들과 후배 문인

들이 참석해 추모시 낭송, 기념사업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은 추모제를 마치고, 광주시 북구 운암동 중의공원 내에 세워진 김남주 시비를 답사하며 고인의 예술혼을 기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미진 가야금 독주회

19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가야금 연주자 김미진(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씨가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19일 오후 7시 서구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

김 씨는 이번 공연에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연주할 예정. 김죽파류 산조는 강하고 박력 있는 연주가 특징이며 특히 계면조 가락에서는 슬픈 느낌

김보다 화사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대 국악과와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현재 전남대 국악과 박사과정에서 수학 중이다. 광주교육대 강사, 빛고을 무용가야금연주단으로 활동 중이며 정음성 국제음악제 등에 참여했다. 장단은 이양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씨가 맡는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서울·부산 작가 22명 초대전

2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5일까지 광주, 서울, 부산 작가 22명을 초대한 신년 기획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상연, 송필용, 신호윤, 임남진, 전현숙, 정선희 등 광주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북쪽 뒀는 꽃 그림을 선보인다. 또 고지영, 구성연, 김남영, 김용철, 김장희, 김진단, 류준호, 박진우, 박현정, 임주리, 정영국, 한수정, 함수연, 함연주, 홍인숙씨 등 서울·부산지역 작가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Bloom in Color'를 주제로 꽃처럼 밝은 희망과 기쁨을 표현한 신작을 발표한다.

작가별로 다른 빛깔로 표현되는 꽃의 양상을 엿볼 수 있고, 봄의 기어를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형상화한 평면, 입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송필용씨는 달빛과 매화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그린 '달빛 매화'를 통해 고즈넉한 시골 담장을 표현했다. 또 전현숙씨는 꽃을 실은 세발자전거를 탄 남녀의 모습을



송필용 '달빛 매화'

익살스럽게 표현한 '바람이 간지럽네요'를 전시한다. 이밖에 구성연씨는 팔짱을 끼고서 형상화한 '팝콘시리즈'를, 김남영씨는 선인장 꽃이 핀 화분을 간결하게 색칠한 '선인장'을 각각 선보인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문화예술진흥원' 김태훈 이사장

"무등산 주변 마을곳 복원하겠다"



김태훈 이사장

는 한계가 있었어요. 좀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힘을 모아 체계적인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발전에 힘을 보탬 계획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태훈(45) 이사장은 "공물 창작 공연과 함께 노인과 유아 등 다양한 계층

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무등산 주변의 마을 구 복원 등 옛 문화들을 조사·발굴하는 작업들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올해는 전통문화와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1994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전통문화예술단 '굴림'이 창단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굴림'은 14일 창립총회를 갖고 (사)우리문화예술진흥원으

로 조직을 확대 개편,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풍물 공연과 강습은 물론 우리 문화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 발굴 작업등을 진행해왔지만 개별 단체로

<p>메가박스 구.린원국악사거리 ♥에매1544-0600</p> <p>1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최고급관 2관 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3관 세븐 파운즈 (15세) 4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키친 (15세) 5관 작전 (18세) 6관 유감스러운도시/인크하트-어둠의부활/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7관 작전 (18세) 8관 마린보이 (15세) 9관 인크하트(재)/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15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객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2관 체인질링 (청소년관람불가) 3관 마린보이 (15세) 4관 트랩(청소년관람불가)/알파독(청소년관람불가) 5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6관 쌍화점 (청소년관람불가) 7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금로 실버 성인</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상무병원과 아파트 사이) 해남점(무의역한편)</p> <p>1관 인크하트-어둠의 부활 (전체) 2관 키친 (15세) 3관 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4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 5관 과속스캔들(12세) 6관 작은영웅대스페로 (다비/전체) 7관 작전 (18세) 8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9관 마린보이 (15세) 10관 작전 (18세)</p> <p>• 초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해남점 (10개관) 절대 상영중</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마린보이 (15세) 2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3관 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4관 워닝소리(전체)/작전명 발키리(12세) 5관 체인질링(18세)/유감스러운도시(15세) 6관 적벽대전2 (15세)/ 키친 (15세) 7관 작전 (18세)</p> <p>•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p>	<p>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이포박스 ☎ 267-7777</p> <p>1관 키친 (15세)/쌍화점 (18세) 2관 작전 (18세) 3관 인크하트(전체)/세븐파운즈(15세) 4관 유감스러운도시(15세)/작전명발키리(12세) 5관 작전 (18세) 6관 과속스캔들 (12세) 7관 마린보이 (15세) 8관 적벽대전 (15세) 9관 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10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p> <p>• 500대 넓은 주차장(8시간무료) • 385 매일 실마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북점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p>	<p>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800♥</p> <p>1관 작전 (18세) 2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3관 벤자민버논의시간은가꾸로간다 (12세) 4관 마린보이 (15세) 5관 체인질링 (18세)유감스러운도시(12세) 6관 적벽대전2(15세)/작전명발키리(12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p>
--	--	---	--	--	---